



달래

생태 대가리 떨어져 나가는 소리
 측삭측삭 칼 가는 소리
 흥정 부르익어가며 시끌벅적
 우리네 삶이 찰지게 묻어나는 곳



도토리묵

봄내음 사람내음 5일장에 다 있네

사람냄새 그득한 시장은 봄이 먼저 오는 곳이기도 하다. 봄나물 그리고 봄처럼 가벼운 사람들의 표정과 웃치림. 북적북적이는 시장으로 살가운 봄을 맞으러 가보자.

추억과 꿈을 팝니다 '한산오일장'

한산오일장은 매월 1, 6으로 끝나는 날 한산터미널에서 한산초등학교 사이에서 열린다.

한때는 서천군내에서 가장 큰 장이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아이들은 어른들 바짓가랑이 사이로만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장터 초입은 채소전 거러다. 시금치, 무, 당근, 냉이, 쑥, 고구마를 비롯해 각종 잡곡들도 풍성하게 나온다. 장작불에 솥을 걸고 끓여낸 도토리묵, 직접 만든 두부도 먹을지스럽다. 어물전의 주인공은 서천의 특산물인 바다다.

잡화전에는 곱정, 노랑 고무줄부터 빨래집게, 면봉, 칫솔, 손톱깎이, 이태리타올까지 없는 게 없다.

본격적으로 장이 서는 시간은 오전 9~10시이지만, 한산장의 명물인 모시전을 보려면 새벽 6시 전에는 한대공방 옆 모시거래장에 도착해야 한다.

한산오일장과 연계해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한산모시관,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관, 조류생태전시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마량포구나 흥원항까지 봄바다를 만끽하며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서천 조류생태전시관에서 군산 금강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금강 자전거길을 달려보아도 좋다.

푸짐한 특산물 넘쳐난 인심 '강화닷새장'

2일과 7일마다 강화풍물시장 주차장에서 열리는 강화닷새장은 수도권에서 아직 유명세를 잃지 않고 있다.

냉이, 달래 등의 봄나물과 순무, 속노랑고구마, 사자발약쑥, 강화인삼, 강화삼삼 등 강화특산물을 팔러 나온 할머니들은 인심 좋은 낯빛으로 외지 손님들을 대한다. 섬안의 장터로서 해산물도 풍부하다.

강화도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체험 학습여행지도 많은 때문인지 장터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강화도 특산물인 왕골공예품이나 화문석은 평화전망대로 가는 길 중간의 화문석문화관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강화닷새장 구경과 쇼핑은 바로 곁의 강화풍물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1층은 강화의 청정 농산물이 소비자와 직거래되는 상설장터이고 2층은 식당가이다.

잔칫집 같은 장터 '원주오일장'

오래도록 강원도의 근간이 되어온 원주시의 오일장은 원주전면에 자리한 풍물시장에서 열린다.

매 2, 7일이면 원주교에서 봉평교까지 이어지는 삼각형의 민속풍물시장 터에는 봄빛 가득한 상품을 가지고 나온 상인들로 북적인다.

원주오일장은 먹을거리의 천국이기도 하다. 원주오일장에서 40여 년째 직접 만두를 빚어 팔고 있는 아주머니의 손만두, 어머니때부터 20년 가까이 장터를 오가는 삼형제 족발, 뜨겁게 달궈진 철판에서 부쳐내는 정선할머니의 메밀부침, 돼지고기를 곱게 갈아 만드는 떡갈비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음식들이다. 오일장터가 흐뭇하게 잔치가 벌어진 잔칫집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원주에는 원주 한지테마파크, 박경리문학공원, 원주역사박물관 등 볼거리와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다. 4월 햇빛에 물들고 싶다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로 찾아갈 것.

흥겹고 신명난 '조선 3대장' 안성오일장

안성의 오일장은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날, 안성 중앙시장 주변에 Y자 형태로 들어선다.

안성장은 조선시대 대구장, 전주장과 함께 조선 3대장으로 불릴 만큼 컸다. '안성장은 서울 장보다 두세 가지가 더 난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영조실록'에는 안성장의 규모가 서울의 이현시장이나 철계시장보다 커서 물화가 모이고 도착때들도 모여든다는 기록이 있다.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10시. 상인들이 좌판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보려면 9시까지 장에 나와야 한다.

시장은 초입부터 시끌벅적하다. 달래며 냉이, 두릅, 버섯, 더덕, 상추, 오이, 감자 등 나물과 채소, 푸성귀를 펼친 좌판이 늘어서 있다. 어물전도 한권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생선이며 조개류들을 가득 차려놓은 좌판에서 봄냄새가 물씬 묻어나다. 예부터 안성장은 소를 사고 파는 우시장으로도 유명하다.

'안성맞춤'으로 대변되는 '유기'를 살펴볼 수 있는 안성 맞춤박물관, 신명나는 남사당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남사당공연장, 아침 안개가 서정적인 고삼저수지 등과 함께 일정을 짜면 알찬 봄여행을 즐길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봄나물



어물전



떡갈비

화 / 제 / 집 / 중 / 한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포켓 사이즈
- MP3 무로다운
- 효율적 학습



"말씨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간수 각권 7,000원

말씨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간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대진·임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